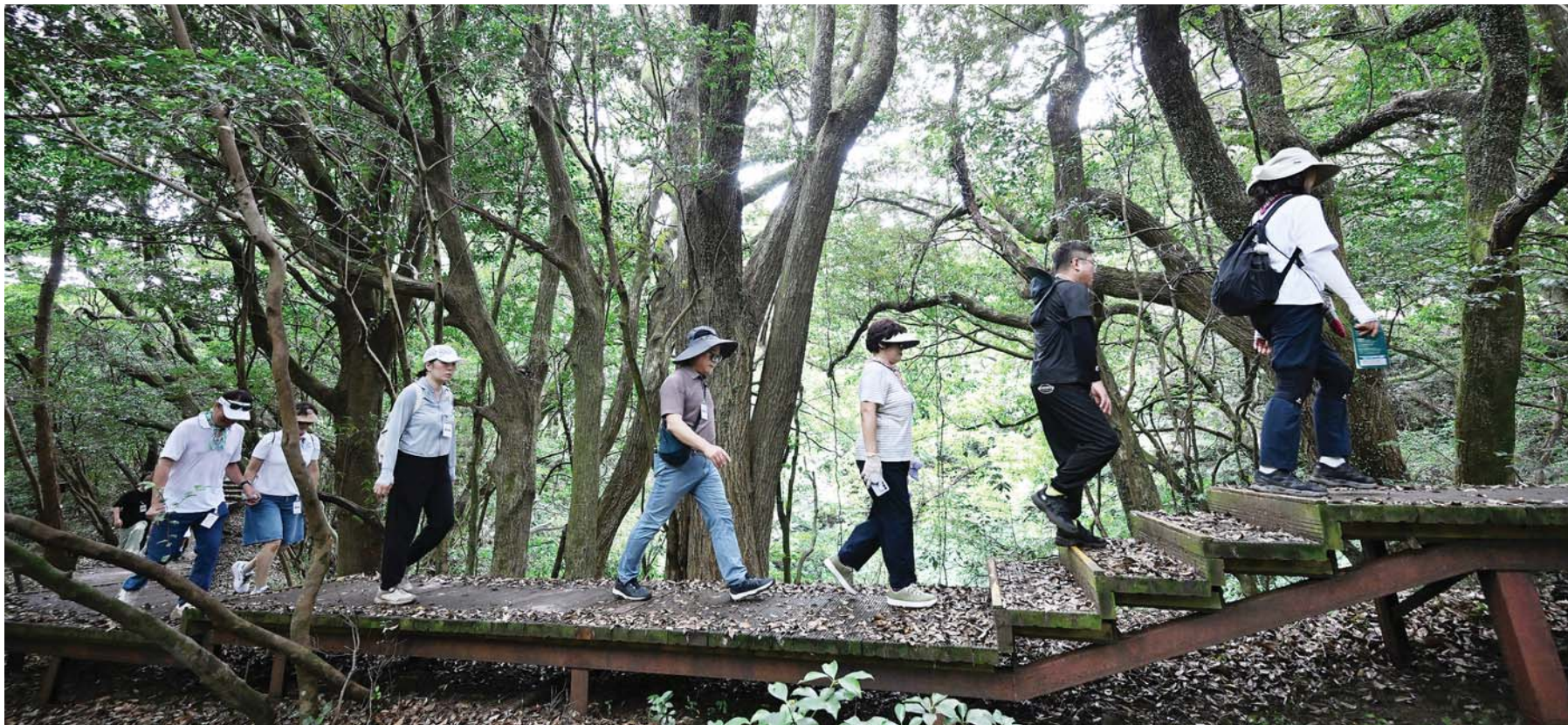




거문오름 트레킹 제17회 거문오름 트레킹 행사가 시작된 13일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거문오름을 찾아 비경을 즐겼다. >> 관련기사 7면

강혁만기자

제주 기점 하늘길 표 전쟁 계속되나

7월 공급식 지난해보다 11만석 줄어... 녀 달 연속 감소
하루 평균 3700석 ↓... 인기 노선인 김포 하루 9편 줄어
공항공사가 '좌석 늘린 항공사 착륙료 면제' 인센티브 주목

제주공항을 오가는 13개 국내선 노선의 공급 좌석이 7월까지 녀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9일 항공사 하계스케줄 운항이 시작된 이후 이어진 공급 좌석 부족 현상은 동계스케줄이 시작되는 10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관광객과 도민들의 항공권 구하기 전쟁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13일 항공정보포털시스템 통계를 분석한 결과, 7월 제주공항 국내선 운항 항공기(출·도착)는 1만 2942편, 공급 좌석은 241만9308석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1만 3252편, 253만4055석)과 비교하면

운항 편수는 2.3%(310편), 공급 좌석은 4.5%(11만4747석) 각각 감소했다. 하루 평균 약 3700석의 공급 좌석이 줄어든 셈이다.

앞서 지난 3월만 해도 국내선 공급 좌석은 246만1730석으로, 1년 전보다 10.5%(23만4698석) 증가했다. 하지만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4월에는 6.8%(16만5678석) 감소했다. 이어 5월 3.3%(8만2688석), 6월 9.1%(22만5415석) 줄어든 데 이어 7월에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7월 국내선 이용 여객(유입·환

승)은 214만1185명으로, 탑승률은 88.5%를 기록했다. 지난해 탑승률(89.6%)보다 1.1%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는 편도 기준 유류할증료가 2만4200원으로 지난해(7700원)보다 3.2배 상승하면서 비용 부담과 함께 항공 좌석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선 노선별로는 주력 노선인 제주~김포 노선에 6572편이 운항돼 지난해보다 280편 줄었다. 하루 평균 9편꼴로 감소한 셈이다. 제주~김해 노선은 149편 감소한 1810편, 제주~대구 노선은 130편 줄어든 979편이 운항됐다. 반면 지난해 15편 운항에 그쳤던 제주~인천 노선은 41편으로 늘었다. 지난 5월부터 제주항공이 주 2회 운항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항공 좌석난이 심각해지면서 한

국공항공사는 지난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주~김포 노선에 대한 공급 좌석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이 기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제주~김포 노선 출·도착 공급 좌석 수 누적 증가분이 3360석을 넘을 경우, 초과분 유입 여객 1명당 5000원의 제주공항 착륙료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관계자는 "항공사별 7월 운항 실적은 최종 확정되지 않아 인센티브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감면 대상에서 해당 월 제주~김포 노선 비운항 계획을 제출하는 항공사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7월 공급 좌석이 감소한 국내선과 달리 국제선 공급 좌석은 39만 7021석으로 지난해보다 10.0%(3만 5986석) 증가했다.

문미숙기자

김녕 공공주택지구 사업 8년 만에 재시동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계획 공고

정부가 지구 지정 이후 8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김녕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나서면서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관보를 통해 김녕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공고했다.

공공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등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나 분양주택을 말한다.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전체 주택 가운데 절반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내 아파트 개발의 지역 균형에 초점을 맞춰 추진됐다. 해당 부지가 대부분 도유지라는 점은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문에서 "김녕리 일대는 건축물의 노후화와 고령화 심화, 생활 SOC 부족 등으로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북측 해안까지 확장하고 관광·휴양·상업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 설명회를 오는 9월 1일 제주도 구좌읍 김녕리사무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김녕공공주택지구는 2018년 12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구지정을 했지만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경제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구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후 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사업부지를 17만9483㎡로 재차 조정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이같은 지구지정 변경을 위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본안을 제출하고,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완료되면 재해영향성 검토를 진행한다.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지구지정변경이 가능하다"며 "이같은 절차를 마무리된 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할 때 세부 내용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부미현기자

제주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 '적합'

절물 내 시설 등 4개소

먹는물공동시설 모두 먹는물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도내 먹는물공동시설 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2분기 정기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먹는물공동시설은 여러 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한다.

대상 시설은 절물자연휴양림 내 1개소와 한라산국립공원 내 영실

물·노루샘·사제비물 3개소로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분기마다 수질검사가 이뤄진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검사에서 사제비물을 포함한 4개 시설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안전한 수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라 전년도 수질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시설별 등급을 ▷안심(부적합 0회) ▷양호(부적합 1회) ▷주의(부적합 2회) ▷우려(부적합 3회 이상)로 관리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결식아동 급식비 무더기 소멸... 4면 / 서귀포 홈플러스 재개장... 5면

토·일·월요일 신문 쉽니다

2026 세계자연유산제주 거문오름트레킹 개최를 축하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제주여행!

(주)유한고속관광이 고객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통학버스(등·하교) / 현장학습 수학여행 / 오름친목 / 결혼수송

전세버스 80대 보유

(주)유한고속관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77

T.724-9595,0995, F.724-4411

http://www.yeuhangosog.com